Special Feature

중국의 대졸자 고용현황과 과제

멍쉬둬(孟續鐸)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역량구축연구실 보조연구원)

21세기 들어 중국 대졸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114만 명이던 대졸자 수는 2017년에 6배 늘어난 795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다. 그러나 한편 늘어난 대졸자 수는 심각한 고용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평균 700여 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 취업문제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졸자는 정부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개혁의 진전 및 구조조정의 심화 상황에서 신경제, '인터넷+', '대중창업 및 혁신' 등의 전략이 대졸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촉진 및 창업장려 정책이 개선되어 대졸자의 취업과 창업에 유리한 정책적 환경과 성장공간이 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 관련 통계자료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업의 수준, 경향, 분포현황 등의 측면에서 중국 대졸자 취업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대졸자 고용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본고는 중국국가사회과학기금의 주요 연구과제인 「산업 고도화하에서의 대졸자의 취업실태 연구」(승인번호: 14ZDA068) 중의 일부로서, 2017년 11월 17일 한국노동연구원,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및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일본 도쿄 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5차 동북아노동포럼에서 발표된 저자의 발표문이다.

■ 중국 대졸자 취업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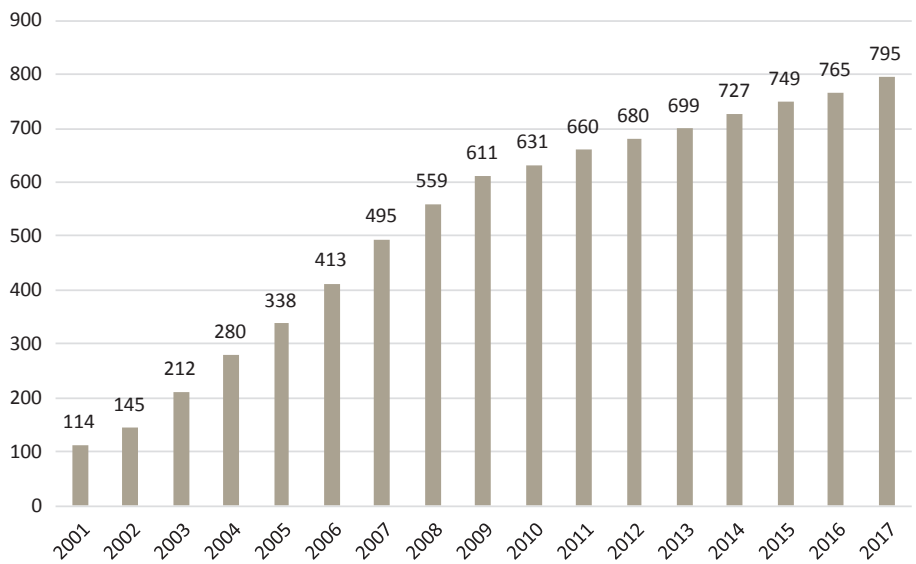
1999년 대학 정원 확대 이후 2009년까지 대졸자 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매년 당해연도 대졸자의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대졸자 수의 급증

2000년대 초반 100만 명 수준이었던 중국 대졸자 수는 2009년에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12~2017년에는 각각 680만, 699만, 727만, 749만, 765만, 795만 명에 달하는 등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증했다. 최근 들어 대졸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대졸자들의 취업 압박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이후 중국 GDP 증가세가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전환되면서 지난 5년간 GDP 성장률은 7.9%, 7.8%, 7.3%, 6.9%, 6.7%를 기록했으

[그림 1] 2001~2017년 중국 대졸자 수

(단위 : 만 명)



자료 : 중국 교육부 통계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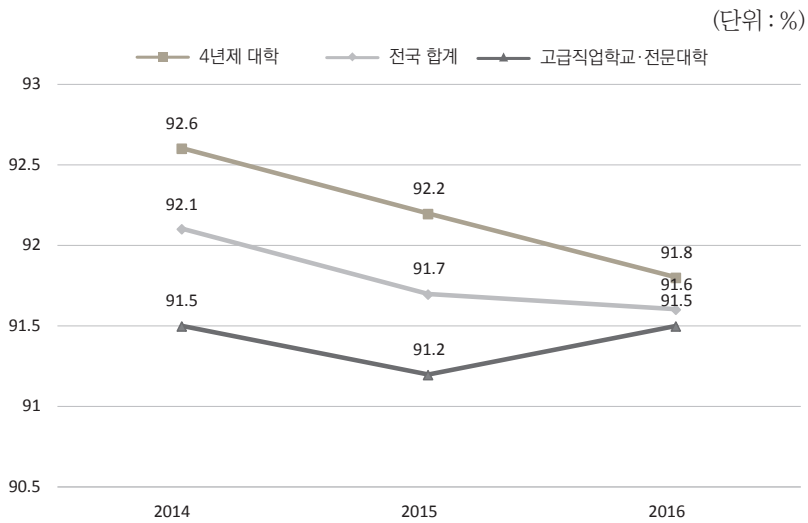
며, 이는 대졸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 경제규모의 확대와 3차 산업의 빠른 성장, 고용유연성의 증가, 정부의 취업 및 창업 촉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대졸자 고용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대졸자 고용현황

대졸자 수의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압박과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는 대졸자 취업 및 창업 촉진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개선함으로써 대졸자 고용상황을 안정시키고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였다. 지난 5년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대졸자 고용촉진을 주요 과제로 삼고 '대졸자 취업 및 창업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대졸자 고용수준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3년부터 4년 연속 취업자 수와 창업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 대졸자의 1차 취업률[1]은 14년 연속 70%를 상회했다.

마이커스(MyCos)가 발표한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취업청서)』에 따르면, 2016년 대학

[그림 2] 2014~2016년 대학 졸업 6개월 이내 취업률 동향



자료 : MyCos,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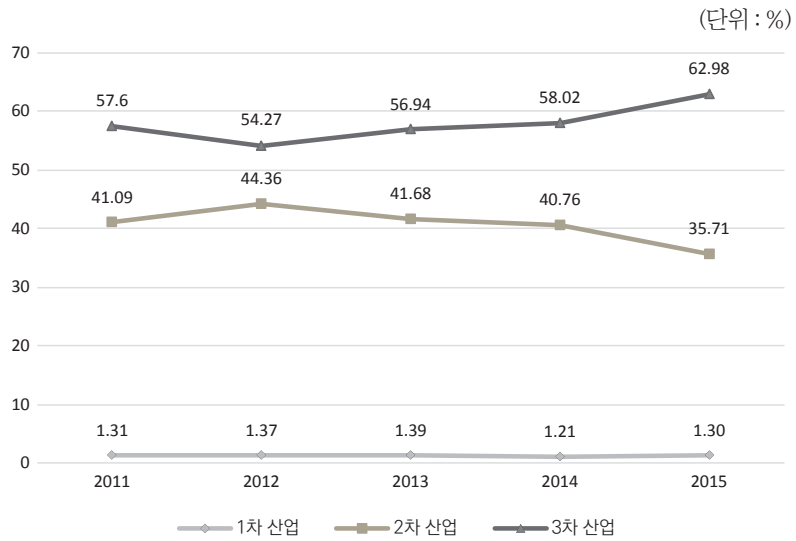
1) 역자 주 : '대졸자 1차 취업률(初次就業率)'이란 대학 졸업 6개월 이내 취업률을 가리킴.

졸업 6개월 이내 취업률(91.6%)은 2015년(91.7%)과 거의 동일하고, 2014년(92.1%)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그중 2016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6개월 이내 취업률은 91.8%로 2015년(92.2%)과 유사한 수준이며, 2014년(92.6%)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2016년 고급직업학교·전문대학 졸업자의 6개월 이내 취업률은 91.5%로 2015년(91.2%) 및 2014년(91.5%)과 거의 동일했다. 지난 3년간 추세를 보면 대졸자의 졸업 6개월 이내 취업률은 대체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자 취업 산업부문 및 경제구조 변화추이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분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1차 산업 취업비중은 1.3%로 큰 변화 없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2차 산업 비중은 2015년 졸업자의 경우 35.71%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졸업자 중 3차 산업 취업비중은 전년대비 4.96%p(증가율 8.55%) 상승한 62.98%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3] 2011~2015년 대졸자의 산업별 취업분포



자료 : MyCos,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 각 연도.

전반적으로 대졸자가 취업하는 주요 산업부문은 3차 산업이며, 이는 3차 산업이 일자리 재생능력과 고용 흡수력이 강하고 인력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중국 정부의 3차 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모델 전환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향후 3차 산업의 비중 확대에 따라 대졸자의 3차 산업 취업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3차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졸자 수용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에 나타난 2016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6개월 이내 취업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업'(13.7%)이고, '언론 및 정보통신산업'(10.3%)이 그 뒤를 이었다. 2014년과 비교 시 2016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증가가 가장 큰 산업은 '교육업'(+3.1%p)이며, 그 다음이 '금융업(은행·보험·증권)'(+2.0%p), '언론 및 정보통신산업'(+1.8%p)이다. 대졸자 취업비중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은 '건축업'으로 1.6%p 하락했다. 2014~2016년 3년간의 산업별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교육업 및 금융업(은행·보험·증권)' 취업비중은 매년 증가한 반면, '전자·전기 계측장비 및 PC제조업'과 '기계 및 철물제조업' 취업비중은 매년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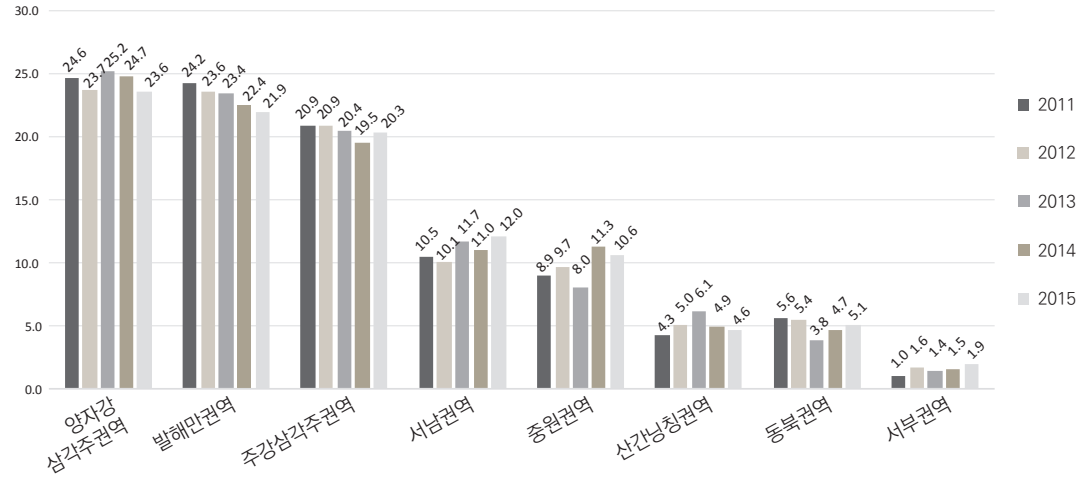
대졸자 취업의 지역별 비중

본고에서는 관련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중국 31개 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를 8개 경제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2]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자 취업지역이 양자강삼각주권역, 발해만권역, 주강삼각주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5년 졸업자의 경우, 이들 3개 지역에서 취업한 비중이 각각 23.6%, 21.9%, 20.3%에 이르며 총 65.8%를 기록했다. 2위는 서남권역과 중원권역으로 각각 12.0%와 10.6% 였다. 3위는 산간닝칭권역과 동북권역으로 각각 4.6%와 5.1%였다. 서부권역에서의 취업비중은 1.9%에 그쳤다.

2) MyCos는 중국 내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8개 경제권역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① 동북권역(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② 발해만권역(베이징, 톈진, 산둥, 허베이, 네이멍구, 산시(山西)), ③ 산간닝칭권역(산시(陕西)·간쑤·닝샤·칭하이), ④ 중원권역(허난, 후베이, 후난), ⑤ 양자강삼각주권역(상하이, 장쑤, 저장, 장시, 안후이), ⑥ 주강상각주권역(광둥, 광시, 푸젠, 하이난), ⑦ 서남권역(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⑧ 서부생태경제권역(티베트, 신장).

[그림 4] 2011~2015년 대졸자 취업의 지역별 비중

(단위 : %)



자료 : MyCos,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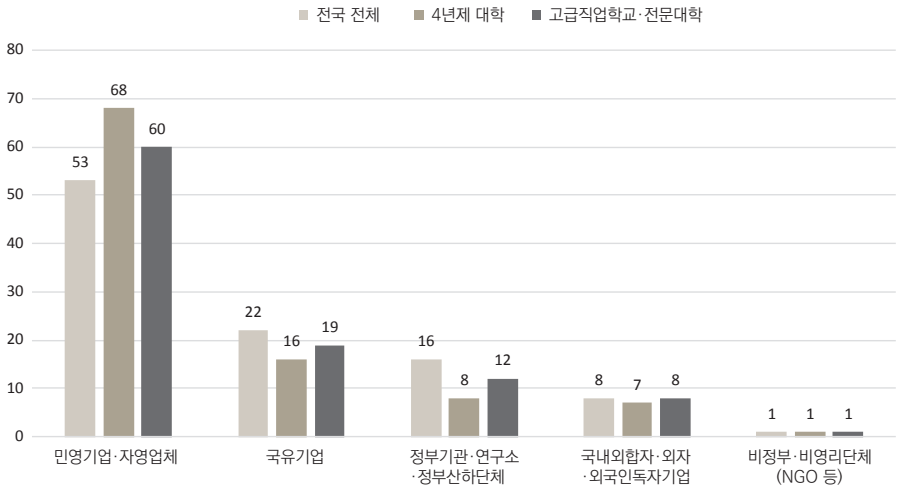
최근에 중국 국내산업의 지역 간 이전이 확대되면서 경제발달지역의 일부 산업이 중서부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면서 중서부지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었다. 이는 대졸자의 취업지역 비중에도 변화를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발달지역에서 대졸자의 취업비중은 감소하고 중서부 경제미발달지역에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1~2015년 졸업자의 취업지역과 관련하여 3가지 추이가 관찰되었다. 첫째, 양자강삼각주권역, 발해만권역, 주강삼각주권역 및 동북권역에서 대졸자의 취업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둘째, 서남권역, 중원권역 및 산간닝칭권역에서 대졸자의 취업비중이 다소 늘어났는데, 그중 중원권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셋째, 서부권역의 경우 지역발전 수준과 인구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고용 흡수력이 낮지만, 기존의 매우 낮은 취업비중으로 인하여 2015년 대졸자 취업비중이 2011년 대비 0.9%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졸자 고용기관의 유형

중국에서 민간부문과 자영업이 발전하면서 민영기업이 최대 고용주로 부상했고 대졸자 취

[그림 5] 2016년 대졸인력 사용자 유형

(단위 : %)



자료 : MyCos,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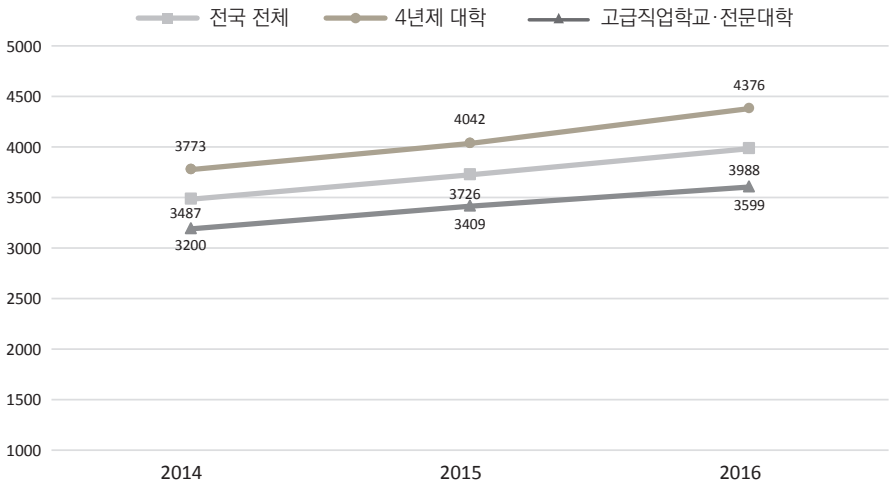
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왔다.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졸자 취업비중이 가장 높은 사용자 유형은 '민영기업 및 자영업체'로 60%를 차지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53%와 고급직업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중 68%가 '민영기업 및 자영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유기업, 정부기관, 정부산하단체 등의 취업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졸자 임금소득의 안정적 상승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대졸자의 취업 후 임금소득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중국의 경제·사회와 근로자 소득수준의 '동반성장'이 실현되었다.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배출된 대졸자의 졸업 6개월 후 월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대졸자의 월소득(3,988위안)이 2015년(3,726위안) 대비 262위안, 2014년(3,487위안) 대비 501위안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추세를 보면 대졸자의 졸업 6개월 후 월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2014~2016년 대졸자의 졸업 6개월 후 월소득 추이

(단위 : 위안)



자료 : MyCos,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 각 연도.

대졸자 고용형태의 다양화

중국에서 신경제와 신업종 및 신산업이 출현하고 발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었고 고용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중국 중부지역의 한 성(省)이 관내 거주 대졸자 30여만 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2016년 대졸자의 진로 중 취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중 유연한 고용형태가 절반에 가까운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 등을 포함한 고용형태는 30%에 달했다. 반면 취업대기 중인 대졸자는 낮은 비율에 불과했으며,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인터넷+', '대중창업 및 혁신' 등의 전략을 추진하게 되면서 신경제와 신업종이 빠르게 성장했고 유연한 고용형태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도 보다 많이 창출되었으며, 이는 현재 대학생들의 직업철학과도 부합한다. 유연한 고용형태로 취업하는 것은 대졸자가 구직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통해 '선취업, 후직업'을 실현하

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지금의 대졸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취업의 꿈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국 대졸자 고용확대 방안

중국 정부는 대졸자 고용확대를 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0년부터 대졸자 취업 및 창업 촉진정책을 마련해왔다. 지방정부도 실정에 기반을 둔 정책 정비를 통해 대졸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왔다.

체계적 지휘와 부서 간 연계를 통한 대졸자 취업 및 창업 촉진

중국 정부는 대졸자 취업 및 창업 정책에 대한 지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정부는 고용업무합동회의의 조율시스템을 통해 관련 부서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협조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졸자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협력구도를 형성했다. 교육부처는 대학들이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대학 최고위층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조직, 인력, 자금, 장소' 등 4대 요소가 갖추어지도록 했다. 또한 취업관련 부서를 필두로 해서 학사, 입학, 교육, 무장(武裝)[3] 등의 부서가 참여하는 업무시스템이 대학 내에 구축되도록 함으로써 졸업생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업무가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했다.

취업 및 창업 정책 개선을 통한 대졸자 취업경로 확대

중국 정부는 대졸자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3) 역자 주 : '무장부(武裝部)'란 중국 대학 내에 설치된 1급 군사기관으로 전시 병력 동원, 징병, 예비군 군사훈련 등을 담당한다.

첫째, 대졸자의 취업 분야를 확대시켰다. 첨단 지식집약형 산업, 특히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업, 새로운 업종 및 모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대졸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대졸자가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현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취업 및 창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둘째, 대졸자의 도시 및 농촌지역 기층 취업[4]을 유도 및 장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縣) 이하 기층에 취업한 대졸자를 위해 세제혜택, 높은 급여수준, 학자금 대출 국가 대리상환 등의 보상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기층의 공공관리 및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대졸자들로 하여금 도시와 농촌지역사회에서 교육·문화, 의료·보건, 건강·노후생활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국 중서부지역, 동북지역 및 환경이 열악한 오지에서 대졸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대졸자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대졸자의 주요 취업경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영세기업의 교내 채용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교육, 세무, 중소기업 관련 주무부처 등은 영세기업이 대졸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 및 교육훈련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졸자의 독자창업 및 혁신창업 장려

중국은 대졸자의 혁신창업을 매우 중시한다. 중국 정부는 '대졸자 취업 및 창업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취업과 창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내·외 각 단계, 구직 및 취업의 각 부문, 취업 및 창업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첫째, 각종 창업유도 정책을 마련했다. 사업자 등록, 세제혜택, 창업담보대출, 취업 및 창업 보조금, 사업장 임대료 보조금 등의 창업지원정책과 기업의 대졸자 고용을 장려하는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대졸자가 창업한 기업이 당해연도 대졸자를 고용하도록 중점 지원함으로써 창업이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역자 주 : '기층'이란 농촌과 도시의 가도(街道, 중국의 최말단 행정구역, 한국의 '동'에 해당)를 포함하는 개념임. 현(縣, 한국의 '군'에 해당) 단위 이하 당·정기관, 정부산하단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민간 기관 및 중소기업. 자발적 창업 및 3D 업종도 포함됨.

둘째, 대졸자를 대상으로 혁신창업 교육을 확대했다. 각 지역의 대학들은 인력육성방안, 교과과정, 교육방법론 등의 측면에서 혁신창업 교육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혁신창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습 및 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시뮬레이션과 실습훈련 등의 창업 실천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양한 종류의 혁신 및 창업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학생들의 혁신 마인드와 창업의식, 혁신 및 창업능력을 강화해왔다.

셋째, 창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보육기관, 대졸자 창업단지, 스타트업 스페이스 등 창업지원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창업 멘토단을 확대하여 대졸자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코칭, 프로젝트 인큐베이팅, 장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 구매, 정부와 민간자본 간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창업서비스업계의 선도기업을 대졸자 대상 창업교육과 지원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대학 자체설립, 교내·외 협력, 벤처투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대학생의 독자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와 창업한 동문을 혁신창업 멘토로 초빙하는 등 혁신창업 멘토단도 확충하고 있다.

취업지원서비스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중국 정부는 교내·외 각 단계, 구직 및 취업의 각 부문, 취업 및 창업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업무연계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추진계획의 실행을 독려함으로써 계획추진의 성과를 담보해왔다.

첫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도록 했다. 전국 각지에서 오프라인 위주였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지원업무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위챗, 마이크로블로그, 모바일 APP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발송하고 있다. 대졸자의 구직의사와 사용자의 구인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요와 공급 간 매칭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빠르고 편리하며 효율성 높은 '인터넷+취업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둘째, 대졸자 채용 및 구직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민영기업 채용주간, 취업지원의 달, 취업지원 주간, 대·중도시 합동채용행사 등 특별 지원행사를 개최하여

전문분야 및 업종별로 소규모의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제공했다. 다양한 HR서비스업체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간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사용을 지도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취업곤란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중앙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각 지역의 대학을 통해 졸업생 현황을 파악하고, 성(省) 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교육부서 및 대학과 연계하여 미취업 졸업생의 실명정보를 확보하여 등록정보 피드백, 정보검증 및 추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지원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각 지역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미취업 대졸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곤란을 겪고 있거나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대졸자에게는 '일대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창업 지원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했다.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대졸인력 양성

중국 정부의 교육 주무부처는 대학교육 체계의 개선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졸자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 고등교육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경제 및 사회 개발 수요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 전공, 유형 등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수요와 연계하여 일부 지방의 4년제 대학을 응용형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수준 높은 응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둘째, 교육 및 수업의 개혁을 확대 추진했다. 정부는 각 지역의 대학들이 교과과정의 조정을 통해 실천적 교육과 실습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학연 및 인력고용기관이 결합된 협동교육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혁신정신과 실천능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셋째,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 현황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학들은 대졸자 취업 및 창업 현황과 특징이 반영된 「취업품질연례보고서」를 매년 연말에 대학별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 전공별 취업률, 취업경향, 취업만족도, 창업 건수 및 유형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과별, 전공별 사전경보 및 퇴출시스템을 구축했다.

넷째, 취업지도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했다. 대학별로 전담인력을 두고 취업지도 정책

과 이론의 수준을 높이고 직업지도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직업개발 및 취업지도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학과 및 전공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국 대졸자 고용의 향후 과제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중국 경제의 '뉴노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경제성장세 둔화 요인이 이미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하고 과잉공급 해소, 오염퇴치, 산업 구조조정이 강화되면서 대졸자 취업에도 다양한 변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업 리스크가 커질 것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중국 대졸자 취업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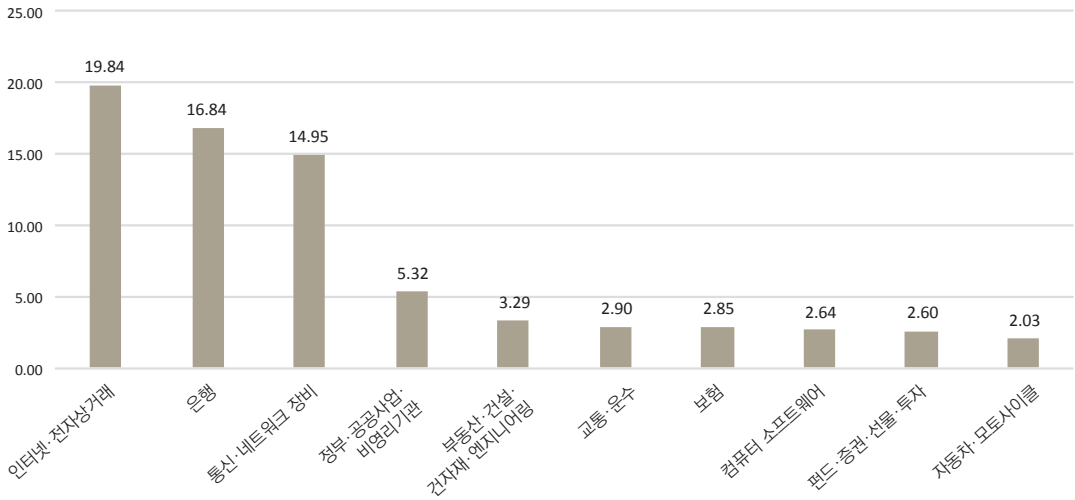
대졸자 취업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산업 고도화에 따라 전통산업이 신산업과 신업종으로 대체되면서 대졸자 취업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zhaopin.com[5]이 발표한 중국 내 대졸자 채용정보를 보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채용 수요가 전체의 1/5 정도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은행'(16.84%), 3위는 '통신 및 네트워크장비'(14.95%)이며, 전국 총 채용 수요에서 1~3위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51.93%). 이는 최근 들어 '인터넷+' 전략이 추진되면서 인터넷산업을 필두로 하는 신경제와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부문 뿐만 아니라 통신 및 네트워크장비 부문의 채용 수요 확대도 견인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은행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산업도 경제성장과 산업 고도화의 대표적인 부문으로서 대졸자 채용 수요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산업이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취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zhaopin.com은 1994년 설립된 중국 내 영향력 있는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업체이다. 본고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5년 1월~2017년 2월 zhaopin.com 사이트에 게재된 중국 내 422개 도시의 대졸자 대상 채용공고이다. 이들 채용정보를 통해 대졸자 고용실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년간 zhaopin.com에 게재된 대졸자 채용공고는 총 53,087건이다.

[그림 7] zhaopin.com상의 채용공고 10대 업종

(단위 : %)



그러나 대학에 개설된 전공과 교과과정이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변화에 뒤처져 있어 중국 내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MyCo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졸자의 담당업무와 전공 간의 상관도가 약 66%이다. 첫째, 전공이 주로 해당 대학의 전공 관련 역량과 개설능력을 토대로 개설되어 있고 시장수요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전공 수요와 공급 간에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난다. 각 전공별 대졸자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일부 전공은 졸업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반면, 일부 전공은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대졸자의 지식구조·기능수준과 신산업·신업종 간에 미스매치 현상이 존재한다. 대학 전공이 실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이 사회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신흥산업의 경우 필요한 전공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직접 학교에 가서 인재를 '입도선매'하기도 하는 반면, 일부 전공은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 졸업자가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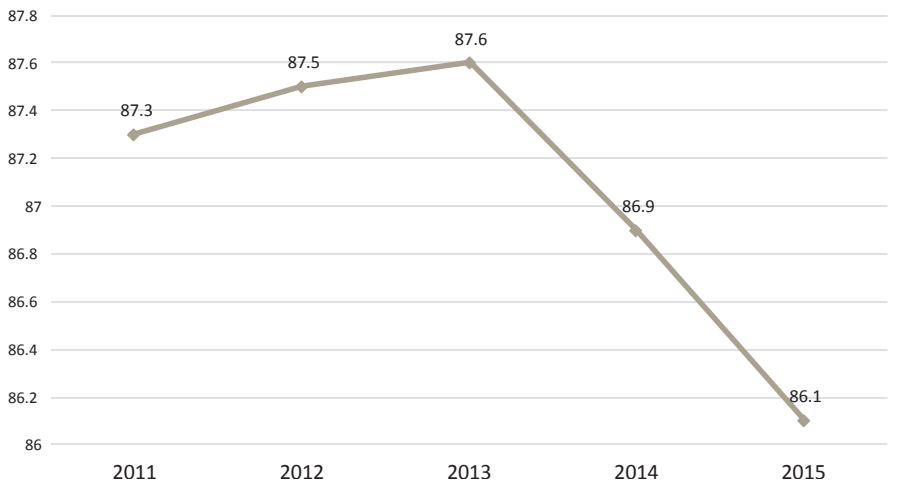
대졸자 취업의 질 문제에 주목 필요

대졸자 취업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의 질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

다. 첫째,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 비율 감소는 대졸자 취업형태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대졸자 취업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MyCo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 취업률은 2011년 87.3%에서 2015년 86.1%로 1.2%p 하락했다. 대졸자 취업동향을 보면, 유연한 고용형태와 새로운 고용형태 등 새로운 취업패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도 잠재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취업은 그에 상응하는 노동권익을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유연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일부 대졸자는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대졸자 전체의 고용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경기 하방압력의 확대,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하여 대졸자의 직업 선택과 일자리 공급 간에 상당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대졸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졸자 취업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리스크와 관련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연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대졸자 현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졸자의 취업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연한 고용형태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2011~2015년 대졸자 취업률

(단위 : %)



자료 : MyCos,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 각 연도.

둘째, 대졸자의 이직률이 높다. MyCo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졸업자 중 졸업 후 6개월 내에 이직을 경험한 비율[6]이 34%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비정규직으로의 취업과 잦은 이직은 대졸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영향을 주는 한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시켰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고용안정성이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0~2015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고용안정성은 76% 정도인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고용안정성은 58%였다.

취약계층의 '지연 취업'에 주목 필요

'지연 취업'은 의도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일부 대학생이 졸업 후 즉시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고 연수 및 농어촌지역 교육봉사에 참여하거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거나 창업 견학 등을 하며 자신의 미래직업과 인생진로를 천천히 고민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경력개발을 고려한 의도된 '지연 취업'은 취업난을 완화하고 대졸자 취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아무런 목표나 계획 없이 집에서 지내기도 한다. 이러한 대졸자 수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임이 분명하다. 청년들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결국 '캥거루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최근 들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계획도 없는 대졸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MyCo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졸업 6개월 후 미취업 상태인 대졸자 중 '계속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2011년 66%에서 2015년 52%로 감소하였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11년 9%에서 2015년 17%로 늘어났다. 이는 중요한 신호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계획도 없다'고 답한 대졸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과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

6)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한 적이 있는 졸업생 대비 이직경험이 있는 졸업생 비율.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졸자의 취업 자신감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불안요인으로서 사회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취업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졸자 비율이 지난 5년간 현저히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룹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011년 5%에서 2015년 10%로 증가했고 전문대 졸업자는 3%에서 6%로 증가했다.

대졸자 채용 수요의 지역 간 격차

zhaopin.com 채용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대졸자 채용 수요에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주강델타권역의 지난 2년간 대졸자 채용 수요는 전국의 28.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양자강델타권역이 22.18%로 2위를, 중원(中原)권역이 12.72%로 3위를 차지했으며, 서부권역이 1.57%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대졸자 채용규모가 각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규모와 발전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발해만, 주강델타, 양자강델타권역 등 동부지역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부문 채용 수요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동부 연안지역이 인터넷산업의 선도지역이자 '첨병'이라는 것과 인터넷이 대졸자 고용확대를 강력히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채용 수요가 적은 업종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지역별 부존자원과 비교우위 및 발전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졸자 고용촉진정책 시행 시 지역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과 대졸자 고용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대학교육구조와 산업구조의 조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동북권역의 대졸자 취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zhaopin.com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보면, 2016년 3·4분기의 전국적인 대졸자 채용 수요가 전년대비 17.5% 감소하였는데, 동북권역은 거의 60% 감소했다. 「중국 대졸자 취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각 권역별 대졸자의 졸업 6개월 이내 취업률은 동북권역이 89.2%로 가장 낮았고, 양자강델타권역은 94.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철강과 석탄 산업의 생산과잉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에서 동북권역의 대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이 부족해지면서 동북권역 대졸자들의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인력유출이 심화되어 동북

지역 경제발전과 산업 고도화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동북지역 대졸자 취업상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련 정책과 지원을 늘리고, 대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고용 흡수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중국 대졸자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산업 고도화와 대졸자 고용확대 연계 추진

첫째, 산업 고도화와 대졸자 고용확대 간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추진, 산업구조의 전환 가속화 및 현대 산업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대졸자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과 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과 대졸자 고용촉진을 연계하여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에 취업하는 졸업자에 대해 전문가 선발, 주민등록 관리, 직위평가 등에 있어 국유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대졸자 고용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연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산업고도화 과정이 인력수요를 수반하므로 대학은 기업과의 협력 및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대졸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과 산업발전 방향을 결합하여 대졸자 직무능력경진대회를 다양하게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졸자 간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하며, 주요 프로젝트별로 교내 채용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수급하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학과 및 전공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대학 전공별 인력수요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산업의 인력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취업을 중심으로 학과 및 전공별 적정 인력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력규모는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구조 및 미래 일자리 수요와도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학교들이 전공구조, 교과과정 편성, 교육내

용, 수업진도 등도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졸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대학과 공동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취업 수요, 취업 능력 등의 정보 수집을 통해 대학생 취업DB를 전국 및 지방 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취업 대졸자 정보 DB도 구축하여 개인별 미취업 원인과 향후 계획 등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후속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지원관을 활용하여 대학생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취업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공공 취업지원 바우처제도를 구축하고 정부부처와 대학 내 취업지원기관 간에 자원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와 각 대학 간에 취업지도 및 진로계획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취업지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당해연도 졸업생과 졸업 후 3년 이내인 기존 졸업생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공공고용서비스기관, 대학, 민간 중개기관 등을 선택하여 정해진 횟수와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취업지도, 진로계획,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바우처제도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은 고용특별기금에서 지출하며 정해진 범위 내의 대학생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 및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산업발전에 대응 가능한 대학생 직무능력교육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개혁을 심화시키고 대학생들의 직업소양 및 숙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사회경험, 직무지식 및 숙련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는 '대학생 직업소양 및 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와 기업의 실정에 맞게 대학교육의 내용과 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험과 기업 인턴십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며 대학생 인턴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부처와 대학이 연계하여 대학생 직업소양 및 숙련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학생의 직업소양 및 숙련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과 표창장을 수여하여 대학생이 취업능력 향상에 매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현재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은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대학생의 취업능력과 경력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소양 및 숙련교육을 담당할 '대학생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일정 시간 동안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무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직업훈련센터는 기업의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수진은 전임교사와 시간제 교사로 구성되며, 전임교사는 3년 이상의 현장 업무경험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시간제 교사는 기업에서 초빙하여 교육이 이론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학교, 민간 연수기관 등이 자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정부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직업훈련센터에서 대학생들이 취득한 성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학점으로 환산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우수자 선발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LI

참고문헌

· 胡鞍钢(1997),「中国就业状况分析[J]」,『管理世界(双月刊)』 1997(3).

· 李付俊·孟续铎(2014),「我国产业转型升级下的高校毕业生就业——研究回顾与展望[J]」,『人口与经济』 2014(6).

· 麦可思研究院(2017), 2017年中国大学生就业报告[M],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莫荣·周宵·孟续铎(2014),「就业趋势分析:产业转型与就业[J]」,『中国劳动』 2014(1).